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 자료



💡 ‘장애인의 날’ 지정 이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날’의 유래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 20일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01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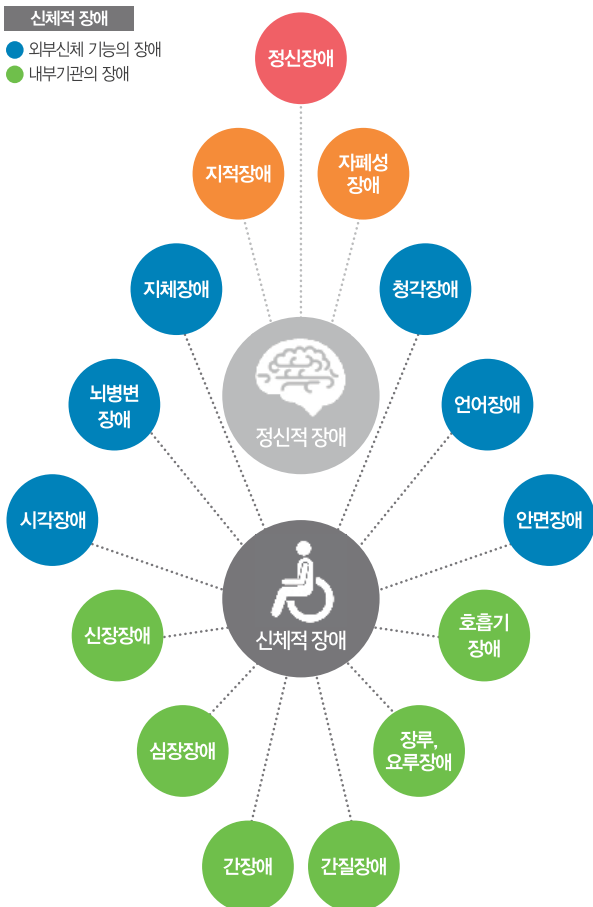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 발달장애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출처 : 보건복지부

02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적어도 7가구 중에 1가구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 이상이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